

## 공동체의식과 사명완수

부산아동자선병원장 박 완 수

이야기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목사이며 작가이고 평론가인 Thomas Carlyle에게 하루는 두터운 봉투의 편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 여선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선생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보람있는 일을 보람있게 할것입니까? 회답을 기다리면서』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Carlyle는 간단한 답장을 써 보였습니다. 『젊은 자매여! 너무 광대하고 복잡한 일들을 생뿔지 말고 간단한 生活을 하시오. 아침 식사는 끝났지요, 그러면 부엌을 깨끗이 치우시오, 서재는 정리 되었는지요, 그러면 學校에 출근하시요, 그리고 學生들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가시오, 친절하게 성실히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혹시 房에 冊과 의복이 흩어져 있거나 않는지? 바느질 그릇에 실꾸리가 얽혀있지 않는지? 바늘이 뽑아져 있거나 않는지? 만일 그 모든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人生관은 바로 풀려지지 않을 것이요』라는 찌막한 내용의 답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선생은 편지를 처음 받아 읽을때에는 실망도 했고 원망도 하였지만 하도 有名한 先生의 편지인지라 두고 두고 읽으면서 그대로 실천 하였더니 무엇인가 깨달아 지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이 땅위에 두실 때 目的이 분명하였을 것이며 각 사람에게는 지워진 使命이 있습니다.

겨울철 주차장 한구석 양지 바른곳에 빈구루마위에 쪼구리고 잠들어있는 사람을 發見하곤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고 머리를 스쳐잡니다.

구루마를 끌어 먹고 사는 사람이니 불행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일을 할 수있는 구루마와 건강은 준비되어 있으 나 할 일이 맡겨지지 않았으니 불행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매다수의 잘못된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便히 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을 福되고 자랑스럽게 生覺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世上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뜻 있는 일거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란 사실물……

우리 看護員들에게는 맡겨진 귀중한 일이 있고 또 건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해서는 안될 반드시 내가 해야할 일입니다

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요? 많은 수의 看護員들이 자기들 일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보다 큰 요인은 우리들은 靑靑의인 직업의식에서 일터에 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보람을 느끼며 사명감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요? 맡겨진 일 그것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 의식을 가지지 못할진데 만족이 있을리 없고 피로운 일뿐이요, 따라서 능률도 없고 절극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看護員들이 할일들을 온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때만이 병원의 살림이 운택해지고 병원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할진데 우리들은 맡겨진 일에 또한 일을 맡는데 있어서 간호원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나름대로의 몇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 우리들은 일을 택할때 보수와 수입이 많은 편을 택함이 보통입니다. 물론 노동의 댓가는 그 보수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직장을 고르게 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오히려 소질과 능력에 맞추어 직장을 선택한다면 뜻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發展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택할 때는 수입에 앞서 그 직책이 나와 나의 사회 즉 병원사회, 병원, 환자, 다른 의로 team에 끼치는 영향, 의의, 결과를 생각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自己의 능력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保育事業에 종사한다면 얼마나 불행 합니까.....

그가 키운 어린이들은 잘못자라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환자를 이해 못하는 간호원은 병원과 환자에게 도움을 줄수가 없고 오히려 부담을주어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를 인식하고 그 직에 임하여야 겠습니다.

셋째로 : 일할 때는 착실하게 계획성있는 활동, 창의성있는 꾸준한 노력과 근면한 자세 우리들의 맡은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한다고하여 누구나가 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적은수의 성공과 많은 사람의 실패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질과 능력에 맞추어 자기를 인식하고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계획성있고 창의성있는 활동만이 우리들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직장인 병원이란 공동체의 한 team의 member로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하고 제나름대로 몇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인관계를 잘 가지도록, 우리들의 직장인 병원은 더우기 그러해야 합니다. 신체의 구조를 보더라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관계를 가지므로 놀라운 인체를 구성합니다. 이와같이 각부분의 직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발전이나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발전은 놀라운만큼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부조화의 성격과 교만한 마음은 인화가 안되며 뿐만 아니라 본인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發展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박사일지라도 슬하에서 연구하는 열사람의 하나된 지혜와 능력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유능으로 교만과 독선의 낙인이 찍히면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貴한 것은 먼저 인간이며 그다음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올바른 대인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상적인 순환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직장의 중심인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높은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자가 자리에 올라가기전에 먼저 그 일터의 중심인물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중심인물이 되는 것인가...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터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일터의 중심인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갑니다. 취직후에는 필수만 있으면 어려운일 귀찮은 일을 멀리합니다. 또한 수고를 피하려합니다.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죠. 우리들은 우리들 일터의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와 지혜를 연마하면서 직장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일은 간호원이 아니면 할수없어』라는 말의 대상이 우리 간호원이 되어 병원의 중심인물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다 더 나아가서는 아낌을 받는 人物 곧 없어서는 아니될 人物이란 말이죠. 그 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여 중심인물이 되는 것도 귀찮진데 더 나아가서 아낌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더욱 귀찮을 압니다. 곧 이 사람은 중심인물이 아니라 그곳의 主人인 것입니다. 그럼 아낌을 받는 인물이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나 하고자하지 않는일, 모두가 등한히 여기는 일에 즉 적은 일까지 관심 을가지고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원들에게 꼭 들려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큰 일에, 영웅적인 충성에 앞서 작은 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실을 기하는 사람이 곧 그 일터의 주인 이요, 없어서는 아니될 아낌받는 인물인 것입니다. 나타난 충성자가 귀찮진데 숨은 봉사자가 이 세 대에 더욱 아쉽습니다. 우리는 숨은 봉사자가 되어 우리병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면서 말씀 맺으려 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Willard Lavid는 1910년 Botimore와 ohio주의 철로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는 처음부터 사장이 될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이회사의 최말단의 철로공으로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태만이나 부주의한 사고로 이회사에서 해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날그날의 일에 조심하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그런 결과 오늘의 광대하고도 무거운 짐이 맡겨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과 태도가 그를 그 방대한 철도회사의 사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바로알아 맡겨진 적은 일까지 최선을 다할 때 보다 더 큰 일이 맡겨질 것이며 그러므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성장이 있고 나아가서는 전체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낌을 받는 병원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